



“불교미술로 문화심미안 열자”

권형필교수 - '실크로드 미술' 장충식교수 - '한국의 불교미술' 출간

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란 부제를 단 <실크로드 미술>은 250여장에 달하는 흑백·컬러 도판을 곁들여 실크로드미술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 실크로드 지도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란 부제를 단 <실크로드 미술>은 250여장에 달하는 흑백·컬러 도판을 곁들여 실크로드미술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 실크로드 지도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있다.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에서 20여년동안 실크로드미술사를 연구해 온 권교수는 실크로드라는 방대한 지역에서 태동한 다양한 민족미술을 '소박성(素朴性)'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로 분석해낸다. 또한 '실크로드미술은 중국의 변방미술이

으로의 확산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회고의 설명. 현재 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교수는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조만간 <동향변화 100선>도 펴낼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 불교미술>은 90여컷의 흑백사진과 함께 불교문화재에



한국의 불교미술

실화와 곁들여 소개했다. 제3장 '불교미술의 이해'에서는 불교미술의 조상방법론과 사상적 배경, 시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재가 신앙의 산물이란 특수성과 관련, 관리상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점과 경주 남산 보존의 당위성을 역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화유산의 해'에 처음 만나는 두 권의 불교미술서, 이들을 통해 불상의 지비로운 모습이나 불탑의 평화로운 자태 속에서 선인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세상과 사람에게 열려있는 수행자像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힐 지음**

실천불교전국 승가회 집행위원장이자 파주 보광사 주지인 효힐스님이 30여년 동안 참선 수행 과정에서 만난 수행자들의 이야기기를 <힘든세상, 도나 닦지>에 묶어 감동적으로 담았다.

따뜻한 스님의 시선은 행사시절 무렵 만난 은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은스님자도 도를 구하던 시절에 만난 도반들에 대한 애정, 약업을 행한 불자들에게 대한 이해와 포용까지 담고 있어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



정을 느끼게 한다. 세상에서 외진 곳에 있는 선방과 아무도 찾지 않는 토굴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 고독한 구도자의 길이지만, 진정한 도인의 길은 결국 사람과 세상으로 열려 있으며 동시대인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 준다. 심리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태백산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던 비구니스님, 야승이든 기인인 적을스님 등 다양한 수행일화가 흥미롭다. <가서원 7천원>

출판소식

전통문화연구 'CD롬 불교경전' 추진

(사)전통문화연구회(이사장 안병주)는 13종의 불경과 당·송대 고승들의 각종 어록을 망라하는 CD-ROM을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나올 이 CD-ROM의 명칭은 <CD-ROM 상우천고(尙友千古)> 2. 일명 '불교경전 보고(寶庫)'로 불린다.

지난 1월 유교 13경과 제가백서, <한시대성(漢時大成)> <고전대성(高田大正)> 등 방대한 동양고전을 수록한 CD-ROM 검색시스템(상우천고 1)을 출시(가격 50만원)한 바 있는 전통문화연구회는 두번째 사업으로 <상우천고 2>를 기획하고 전산입력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공정이 80% 정도 진행중인 <금강경(법화경)> 등 13개의 불경과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고존승어록(古尊僧語錄)> 등 선어록을 담은 이 CD-ROM이 완성될 경우 손쉬운 검색을 활용한 불교학 연구의 저변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선스님 '실천티벳불교입문' 번역

한국 티벳불교 친선협회장 홍선스님(홍국사 주지)이 <실천티벳불교입문>(무량사)를 번역 출간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티벳불교에 대한 관심을 풀어주는 이 책은 티벳불교가 지닌 오해의 여지와 그에 대한 해명, 티벳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초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음사 7천원>

▲<근의 위대한 힘(김종성 지음)>= 부처님 법체(法體)의 상징인 만(卍)자에 대한 해설서. 원심선원 김종성원장(마포중 교사)이 부처님이 증생교화의 방편으로 우주의 실상을 부호화한 구자에 깃든 심오한 뜻을 과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했다. <보리각 4천5백원>

새로나온 책...

▲<화엄경 강의(무비스님 지음)>= 화엄경 전 10권을 완역한 우리시대의 대강백 무비스님(승가대학원장)이 쓴 <화엄경> 길잡이 책. <화엄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계품' 가운데 '근본법회' 부분을 한 문인론과 아울러 조목조목 번역·강설했다. <불광 9천원>

▲<살아있는 釋(류원장 지음)>= 오소 라즈니쉬가 <법암록> 가운데 20여개의 선문답을 골라 특유의 '물어일체(物我一



體)의 말하기 방식'으로 풀이한 책. 달마 조주 일체 조계 문운 등 옛 선사들의 선문답과 계승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라즈니쉬는 "釋은 죽었다. 오늘날 釋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진리이다"고 설파한다. <성학 9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종교란 무엇이고, 불교는 어떤 것인가. 불교 공부의 어떻게 해야하며, 현대 한국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 답을 찾는 사람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고(故) 고익진(高翼晉) 동국대 교수가 쓴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운주사) 권1>이라는 책이다.

'고익진 불교시론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고익진 교수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신문사와 잡지사의 원고창탁을 받고 썼던 불교관계의 글을 모은 것인데 23개 소제목의 글과 14편의 수필과 발원문, 참회문으로 되어있다. 23개의 소제목의 글중 어느 하나라도 흥미롭지 않은 것이 없고 불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 없다. 그중에 몇가지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한국불교 전통계승의 문제, 일불승(一佛乘)의 보살도, 불교의 종교적 본질, 불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불교학은 사람에서부터, 불교의 우주론, 아함의 무아윤회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개념, 원시불교의 인간관, 불교와 기독교 등이다.

이러한 소제목의 글에서 저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명쾌하고 자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14편의 수필 또한 한쪽의 수필화를 보



전 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국불교 어제·오늘·내일 진단

발심과 수행 이끄는 내용 '가득'

뜻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이책의 끝에 붙어있는 저자가 만든 발원문, 참회문에도 저자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잘 드러나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1985년 가을인데 그때 나는 정신과 전공의 2년차로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저자가 지도하는 일승보살회에 가입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때 틈나는 대로 이 책을 읽었는데 일반인을 위해 쉽게 썼으면서도 결코 전문성을 잃지않고 깊이가 있으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종교적 발심과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묘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원래 의대를 다녔으나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젊어서 요양하던 중 <반야심경>에서 '눈이 없다'는 대목을 보고 크게 의심이 나서 3년을 생각한 끝에 나름대로 의문이 풀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후에도 계속 불교공부를 한 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로 전학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8년 타계할 때까지 불교학과 교수생활을 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반야·법회의 삼부경속에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 각 경전은 독자적인 교리적 위치를 지니고 깨달음에 이르는 한 줄기 보살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한국불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교단혁신이나 포교현 대화는 논하기에 앞서 이 삼부경에서 핵심적인 경전을 택하여 근본정신을 편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교수 10명 합작 '최치원 사상과 문학'

부산지역 교수 10명이 <고운선생의 사상과 문학>(신지서원)을 발행해 눈길을 끈다. 부산지역 한국학연구모임인 파전한국학당(披田韓國學堂) 소속 교수들이 펴낸 이 책은 고운선생의 생애 사상 문학 등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채상식교수(부산대)의 '최치원의 불교인식'과 김시홍교수(경북대)의 '고운 최선생의 사산비명에 대하여'는 불교에 관한 고운선생의 사상을 보여줘 눈여겨 볼만하다. '최치원의 불교인식'에서는 선생의 불교인식의 경향을 남아있는 저술이나 비문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고운 최선생의 사산비명에 대하여'에서는 고운선생의 사상을 '신라는 근자국'이라는 동방사상(東方思想)과 유·불·유·불(儒佛)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환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삶은 뉘가 아니다	해 원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삼소공 소식	명 정	극락선원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응	용 화
7	금강경 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8	힘든 세상 도나 닦지	효 립	가 서 원
9	도솔천에서 만났사	장 순 용	세 계 사
10	49재 공덕과 의미	권 집 부	이 바 지

구입문의: (02)737-0695

사주학 핵심비결

송원님 지음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분발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관음출판사

마음 공부 베스트 4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유화**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지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인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